“2600년전 부처님 얼굴에 헤드폰 씌웠죠”

위즈덤하트
(김유진 크리에이터)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크리에이터 위즈덤하트(김유진)는 구랍 1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부처님 얼굴을 디자인한 불교굿즈 ‘붓다티스트’ 펀딩을 론칭했다.

“왜 트렌디한 불교 굿즈는 없을까. 힙한 불교 굿즈는 없는 걸까.”

구랍 1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불교 굿즈’ 펀딩이 론칭됐다. 굿즈의 이름은 ‘붓다티스트’, 론칭한 크리에이터의 이름은 ‘위즈덤하트’ <사진>이다. 스마트폰 케이스, 에어팟프로 케이스, 생활방수 에코백, 미니포스터 등 2030세대를 겨냥한 각각의 굿즈에는 부처님이 헤드폰을 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이제까지 없었던 ‘힙’한 불교 굿즈다. 굿즈에 그려진 일러스트 역시 위즈덤하트의 작품이다. ‘붓다티스트’ 제작자 위즈덤하트(Wisdom Heart)의 본명은 김유진(34)이다. 위즈덤하트는 김유진 씨의 법명인 지혜심(智慧心)에서 왔다. 그리고 굿즈의 브랜드명 ‘붓다티스트’는 붓다(Buddha)와 아티스트(Artist)를 합친 단어다.

헤드폰 쓴 부처님

위즈덤하트는 평소 타종교의 젊은 신자들이 여러 굿즈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는 데 비해 불자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늘 아쉬웠다. 절마다 ‘불교용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불교를 느낄 수 있는 물건이나 매개체는 많지 없는 게 현실이다. 위즈덤하트가 불교 굿즈 펀딩을 결심하게 된 이유다. 그래서 위즈덤하트는 기존의 ‘불교용품’에서 벗어난 좀 더 힙한 감성의 불교 ‘굿즈’를 만들고 싶었고, 그것을 대중에게 전하고 싶었다.

누가 봐도 부처님 얼굴인데, 부처님은 당신 시대에는 없었던 헤드폰을 쓰고 있다. 위즈덤하트는 2천6백 년 전의 부처님 얼굴에 헤드폰을 씌웠다. 꾹 눌러 감은 눈 너머로 경쾌한 팝음악이 흐를 것 같고, 앙다문 입가엔 알 수 없지만 알 것 같은 이야기가 있다. 2천6백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처님 얼굴과 ‘Buddhatist’라는 글자가 에코백과 스마트폰 케이스, 에어팟프로 케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붓다의 개념을 얹히고 싶었어요. 제게 붓다는 신(god)이 아닌 깨달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 철학자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붓다는 철학자면서 동시에 아티스트에요. 기존의 철학이나 예술(음악, 미술, 사진, 글)에서 또 다른 사상이 탄생하고 또 확장되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글, 문구, 문장이 되어 다른 이에게 깨우침을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예술’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부처님을 아티스트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없던 생각이다. 불교 굿즈.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불교용품’의 또 다른 이름, 진화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껏 불렀던 ‘불교용품’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았던 ‘물건’, ‘용품’이었다면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는 ‘물건’에 디자인을 입혔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그래픽적인 요소와 더불어 불교적 시그니처를 함께 지니고 있어 다른 디자인과는 다른 의미의 디자인이다. 그동안의 불교용품이 절 안에서 파는 ‘용품’이었다면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는 절 밖으로 나온, 그리고 절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굿즈’다.

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 펀딩은 이미 목표 금액인 5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알게 모르게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펀딩은 성공이다. 비록 이번 펀딩은 펀딩자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리워드펀딩이지만 위즈덤하트는 이제 자신의 굿즈와 불교를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과 에어팟프로, 에코백은 젊은 세대들에게 물과 공기 같은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에어팟프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고 있는 상품이다. 비록 이번 펀딩을 통해서는 소수의 펀딩자들에게만 돌아갈 굿즈이지만 그것은 작은 시작이 아니라 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많은 상품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그려진 디자인을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꼭 위즈덤하트의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가 더 많은 불교 굿즈에 대한 모색과 시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즈덤하트의 붓다티스트는 작지만 소중한 ‘시작’이다.


위즈덤하트의 불교굿즈 ‘붓다티스트’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 ‘불교 굿즈’ 론칭해
펀딩 목표금액 50만원 초과 달성 펀딩 성공

스마트폰, 에어팟 프로 케이스, 에코백 등에
헤드폰 쓴 부처님얼굴 일러스트 디자인 입혀
영어 ‘위즈덤 하트’, 4살때 받은 법명 ‘지혜심’
2021년, 홈페이지 개설 불교 그림 알릴 계획

본명 같은 법명, 지혜심

위즈덤하트, 그는 왜 전 인류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케이스에, 전 세계적인 브랜드 에어팟프로에, 젊음의 상징과도 같은 에코백에 부처님 얼굴을 그려 넣고 싶었을까. 그에게 부처님이란 어떤 의미일까. 서두에 밝혔듯이 위즈덤하트라는 이름은 법명 ‘지혜심’의 영어 버전이다. 김유진 씨는 그 법명을 네 살 때 받았다. 네 살, 분명 본인의 의지로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심’은 웬만한 불자라면 하나 쯤 가지고 있는 법명과는 다른 의미의 법명이다. 대부분의 불자들 법명이 ‘받은 법명’이라면 김유진의 지혜심은 ‘정해진’ 법명 같은 것이다. ‘절에 가서’ 받은 법명이 아니라 ‘절에서 있어서 받은’ 이름이다. 어쩌면 김유진의 삶은 네 살 때 그 이름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혜심’은 본명 같은 것이다. 자신을 이야기할 때 시작되는 이름은 지혜심인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김유진보다는 지혜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지혜심으로 살았던, 지혜심으로 살고 있는 그녀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모국어와 같은 ‘언어’이고, 가지고 태어난 ‘웃음’이고 ‘눈물’이고 ‘기침’이다.

‘붓다티스트’ 비긴즈

성인이 된 지혜심의 첫 직장은 BBS불교방송(이하 불교방송)이었다. 그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불교방송 기획홍보부에서 일했다. 그녀는 2016년 여름, 자사 프로그램에서 스님들이 랩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된다. 그녀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담당 PD에게 연락해 영상을 받아왔다. 당시 기획홍보부 소속이면서 동시에 뉴미디어 TFT멤버이기도 했던 지혜심은 그 영상을 ‘쇼미더붓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틀 뒤 ‘쇼미더붓다’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이 공개됐는데 ‘대박’이었다. 무려 1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제가 그 영상을 당시 다니던 회사 소셜 계정에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새롭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법문이 아닌 랩으로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불자들은 불교를 조금은 어려운 종교로, 조금은 지루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붓다티스트 ‘비긴즈’다. 지혜심이 불교방송에 근무했던 시절, 그녀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불교일러스트 작가들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롭게 올라오는 불교일러스트를 보는 것이었다. 위즈덤하트가 불교굿즈를 만들고 펀딩을 론칭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2016년 불교방송을 그만두고 불교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 지금은 IT계통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이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서양철학을 공부하는 스터디모임에 가입하게 됐다. 모임에서는 ‘감정 글쓰기’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 각자의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그 이야기를 기술하는 시간이었다. 지혜심은 그 ‘감정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림’은 그녀에게 잠들어 있던 ‘재능’이었으며, 잠들어 있던 꿈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그 길을 꿈꿀 수 없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혜심은 바로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펼쳐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금 “내가 진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리는 그림 중에는 부처님이 많이 등장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그리는 그림은 여지없이 ‘부처님’이었다. 헤드폰을 쓴 부처님도 그렇게 그려졌다.

그리고 어느 날, 지혜심은 와디즈가 디자이너 작가를 모집한다는 펀딩 공모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된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거다’ 생각했고, 평소에 그려놓았던 부처님 얼굴 그림 한 장을 급하게 보냈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 일러스트 딸랑 한 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냈다. 구체적인 굿즈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한 장의 그림으로 충분했다. 그 그림 한 장엔 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작가로 당선됐고 펀딩은 시작됐다.

불교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지혜심

지혜심의 2021년 신년 계획은 홈페이지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 홈페이지를 연 그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교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지혜가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왜, 부처님이 그려진 가방을 메고 교정을 걷는 학생들을 볼 수 없을까.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 부처님 캐릭터는 왜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자신의 종교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이나 불교를 소재로 디자인한 물건이나 그림들을 보고 싶었어요.”

지혜심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혜심이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매일매일 부처님 그림을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왜 부처님 얼굴을 그리고, 불교의 지혜를 담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굳이 말한다면 아빠가 좋은 이유, 엄마가 좋은 이유와 비슷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심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그림 속에는 늘 부처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즈덤하트(김유진)는
인하대학교에서 역사와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다. BBS불교방송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IT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0년 12월 15일 와디즈에 불교굿즈 ‘붓다티스트’ 펀딩을 론칭해 펀딩에 성공했다.